

정치권 '단독국회' 정면 충돌

# 양보없는 여야 ... 또 '폭력국회' 우려

한나라당이 예고대로 단독 국회 개회 절차에 착수하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 농성에 들어가면서 정국 국회는 일촉즉발의 정면 충돌위기로 치닫고 있다.

특히 양당 지도부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특단의 해법이 없는 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간 실력 대결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23일 오전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출한 소집 요구서에서 비정규직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개회한다는 이유를 명시했다. 예고대로라면 6월 임시국회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열리게 됐다. 우선 한나라당은 주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모든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민생도, 여야간 합의도 헌신적 취급하는 민주당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며칠 후면 다가올 비정규직 실업대란 등 민생현안이 중요한 만큼 국회를 열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단독 국회 개회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 상황에서도 이철우 "단독 개회"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조문정국에 종지부를 찍고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 농성할 때 대해 윤상현 대변인은 "국민을 불모로 잡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일을 하고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 여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말해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또다시 '물리적 저지' 카드를



민주당 강경파 초재선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요구에 반발, 국회 중앙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임시국회 개회 절차 착수

## 민주, 외부세력 연대 물리적 저지

당내 강경파 초·재선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일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단독소집을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입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당내 강경파들이 우선 행동에 나섰지만,

당 지도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농성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과의 정면충돌 상황을 상정한 전술과 수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

졌다. 참석자들은 일단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단독으로 농성을 시작하되,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임시국회 개회일인 26일엔 당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논의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도 물리력을 동원하자는 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국의 흐름에 따라 단식과 장의투쟁, 외부세력과의 연대 등의 전술을 적절히 구사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협상 강화하면 與 단독처리 못할 것"

### 협상과 박상천 의원 '소신발언' 눈길

할 게 아니라 직종,연령에 따라 세분화하면 우리가 비정규직법 개정에 임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협상타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에서도 앞선 연말연초의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에 고언을 쏟아냈다. 특히 "법안에 대한 대응에는 찬성이나 반대 이외에 수정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며 야당의 투쟁일변도 대응방식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쟁점법안 표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필리버스터제를 소개하며 '타협추구형 국회법 개정'을 주장했고 이는 당론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날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한나라당이 우리가 협상을 계속할 때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반박했다. /연합뉴스

## '선초회' 공식 출범 ... '민본21'과 대립각

# 한나라 계파분화 가속화

여권 전면쇄신 논란 와중에 한나라당의 계파분화가 가속화하면서 중도우파 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선초회를 추구하는 초선 모임'(선초회)이 23일 창립선언문을 내고 공식 출범했다.

선초회는 대한민국 선진화, 이념과 계파를 초월한 '신여의도 정치', 선진화 1기 정권의 성공과 2기 정권의 창출, 보수정당 분연의 모습에 걸맞은 쇄신 등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선초회는 창립선언문에서 "한나라당이 방황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압세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힘차게 추동해 내지 못한 채 집안싸움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면서 "선초회가 선진화 개혁의 대장정에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임에는 공동간사인 나성린(정책담당) 이법래(정무담당) 의원을 포함해 강석호 강성천 김동성 김성희 배은희 신지호 안효대 여성규 유일호 유정현 윤영 이우아 이은재 이정선 이철우 장재원 조전혁 의원 등 모두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친이 성향이지만 친박계는 한 명도 없다. 특히 선

초회는 이번 쇄신논란 국면에서는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정 흔들기' 중단을 요구한 '초선 48인'과 비슷한 이념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 선초회 회원 가운데 상당수가 초선 48인 성명에 참여했다.

선초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민본21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정기조 자체가 잘못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내부의 균열이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친이계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안국포럼'의 멤버들이 쇄신국면에서 정무연 권택기 의원 등 강경파와 강규규 조해진 의원 등 온건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데 이어 다른 친이 직계들도 모임별로 발발이 흩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민본21 소속 친이계 김영우 의원은 최근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민본21의 쇄신론에 불만을 품고 모임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는 친이 직계인 정태근 권택기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영산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

## 민주 지도부 '선택과 집중' 해야"

### 최인기 의원 주장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영산강은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의원은 23일 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짓고 강력 저지에 나서고 있으나 영산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대운하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사업

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을 통한 강력한 견제를 보내는 한편 대운하 발전 가능성이 없는 '영산강 살리기'에는 오히려 관심과 지원을 내사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운하는 경인운하~한강~남한강~낙동강 등을 잇는 'ㄱ'자형이며 4대강에 조성되는 20개의 보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무려 13개가 설치되는 반면 영산강은 단 2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강기갑 의원 의원직 유지

## 대법, 벌금 80만원 확정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조모(53)씨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대표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작년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살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3일 89,000원

제주도 여행 4일 124,000원

제주도 여행 5일 179,000원

제주도 여행 6일 224,000원

제주도 여행 7일 279,000원

제주도 여행 8일 324,000원

제주도 여행 9일 379,000원

제주도 여행 10일 424,000원

제주도 여행 11일 479,000원

제주도 여행 12일 524,000원

제주도 여행 13일 579,000원

제주도 여행 14일 624,000원

제주도 여행 15일 679,000원

제주도 여행 16일 724,000원

제주도 여행 17일 779,000원

제주도 여행 18일 824,000원

제주도 여행 19일 879,000원

제주도 여행 20일 924,000원

제주도 여행 21일 979,000원

제주도 여행 22일 1,024,000원

제주도 여행 23일 1,079,000원

제주도 여행 24일 1,124,000원

제주도 여행 25일 1,179,000원

제주도 여행 26일 1,224,000원

제주도 여행 27일 1,279,000원

제주도 여행 28일 1,324,000원

제주도 여행 29일 1,379,000원

제주도 여행 30일 1,424,000원

문의: ☎064-744-1109 www.jejuwongwa.com

나만의 특별한 유학, 알고자!!

**아일랜드 유학 설명회**

Study Ahead in English Language Services 2009 in IRELAND

아일랜드 중·고 유학 및 교환학생 / 어학연수 / 인턴십 / 워킹홀리데이

- 아일랜드 3년간의 완전 무상 교육
- 비자대체 없는 나라 / 완전하고 합법적인 사회
- 국제어종 1위인 영어 / 일한 나날 수월함
- 학업과 취업 / 2008년 기록 갱신
- 행사 일정 / 7월 19일-20일 / 7월 26일-27일 / 7월 31일-8월 1일

“광주” - 7월 19일 & 20일 2pm 광대중 컨벤션 센터 2층 203호

“대전” - 7월 26일 & 27일 2pm 대전컨벤션센터 2층 203호

“부산” - 7월 31일 & 8월 1일 2pm 부산컨벤션센터 2층 203호

문의: ☎064-744-1109 www.jejuwongwa.com